

# 원광대, 대학역량 자율개선대학 선정

###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A등급에 이어 위상↑ 최근 3년간 정량·정성지표 결과 합산 도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대학기 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20일 전국 일반대학 187개 교 중 120개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으며, 이번 진단은 최근 3년간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

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결과를 합산해 도출했다. 이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자율적인 정원감축과 더불어 2019년부터 3년간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을 받으며, 나머지

하위 대학은 정원감축 대상으로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2단계 평가를 받는다. 원광대는 이번에 '자율개선대학'에 지정됨으로써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A등급에 이어 대학 위상을 다시 한번 끌어 올렸다. 김도중 총장은 "감사하다. 구성원 모두 하나 되어 합심한 결과 큰 성과를 이루게 됐다. 정원감축은 대학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번 자율개선대학 지정은 대학 위상 및 대학제정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시대 흐름에 맞는 산업 단지형 캠퍼스를 만들어 진정한 아시아 중심대학을 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광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A등급에 이어 최근까지 5년 연속 창업선도대학, LINC+사업, 인문한국플러스(HK+) 해외지역 분야 대형사업, 프라임사업 대형유형 선정 등 굵직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최우수대학으로서의 기반을 닦았다. /익산=우병희 기자

##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 지역특성 반영한 어린이행복 놀이터 사업 선정 특별교부세 5000만원 확보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친환경적 테마형 어린이놀이터 등이 각광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인 지원 사업 공모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어린이행복 놀이터 사업'이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안 공모에서 제출된 총 198개 응모 사업 중 제1차 서류심사를 통해 43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제2차 현장평가 및 심사를 통해 군산시 제안 사업을 포함한 최종 26개 사업을 특별교부세 지원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시가 공모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테마형 어린이행복 놀이터 사업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동일 형태를 벗어나 인근 3개 놀이터를 테마형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놀이터 3개가 모여 큰 놀이터를 만드는 구성요소가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타 기관 확산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장 제품식으로 만들어지는 어린이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인 만큼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인 지원 사업 공모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어린이행복 놀이터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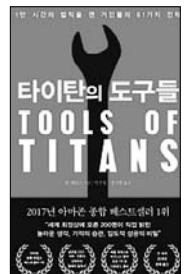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효과적 운영 세입 증대 기여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 등 연간 약 2억원 수익

군산시가 공공하수처리장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세입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합당 대상 업체로 지정된 이후 하수처리장의 자원화시설 및 태양광시설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등의 감축활동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전실히 이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2013년 하·폐수처리장, 새만금유역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군산하수처리장 내에 1일 150톤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했다. 이 시설을 통해 자체 생산되는 소화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지난 해 군산시에 합당된 배출권 중 여분

이 이월돼, 잔여배출권 2만5,000톤은 판매를 통해 약 5억4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 2017년 한 해 동안 자원화시설 운영을 통해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부산물을 판매해 연간 약 2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삼규 하수과장은 "군산시가 배출권 거래제 등을 원활하게 이행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시의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이행수단으로,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에게 매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할당량)을 부여하고 업체별로 남겨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립도서관 1주1책 '타이탄의 도구들' 선정

익산시립도서관은 이번주 1주1책 도서로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는 지난 3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의 수백만 청취자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200명을 직접 만나 그들의 삶을 집중 추적하여 그들과 벌였던 심층 인터뷰와 열띤 토론, 그들이 직접 공개한 성공 비결들을 모아 이 책에 담았다.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기회를 찾아내는 탁월한 통찰력과 무서운 집중력을 통해 10%의 노력으로 10배의 성



과를 내는 사람들, 매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매일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타이탄들이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꿔 놓은 타이탄에게서 예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설계하고 목표를 이루는 지혜와 통찰을 배워보시길 바란다"며 이 책을 추천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군산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군산시는 농촌이탈난 해소와 농업의 미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로 선정된 대상은 농가경영주로 등록하고 현역 3개월, 보충역 2개월 동안 자신의 영농 사업장에서 농업에 종사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이중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단 교육기관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희망하는 자는 영농정착지역 또는 정착 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28일까지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정과(☎454-2836)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코레일 익산역, 28일 '철도의 날' 기념 이벤트 진행

코레일 익산역(역장 김현규)이 올해부터 새롭게 지정된 8월 28일 철도의 날'을 기념해 28일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철도의 날은 노량진-계동로 노선이 개통된 1889년 9월 18일을 기념했으나 일제 잔재라는 지적에 따라 철도국이 설립된 1894년 6월 28일로 올해 개정됐다. 이번 이벤트는 철도의 날로 4행시 짓기'와 철도와 관련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짧은 설명과 함께 업로드 하는 '철도에 담긴 추억사진, 그날 여기

(記)'로 진행되며, 이벤트 참가는 익산역 여행센터 밴드에 가입한 후 공지사항의 이벤트란에 댓글을 남기면 되고 당첨자에게는 블루투스스피커, 보조배터리, 여행용세트 등이 선물로 지급이 될 예정이다. 김현규 익산역장은 "올해 새로 지정된 철도의 날을 익산역 이용 고객들과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고자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안전, 고객, 소품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토대로 고객에게 감동을 전하는 익산역이 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익산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익산시 보건소소장 김재광) 최근 참진드기에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올들어 전국적으로 1월부터 5월31일까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확인된 46명의 양성 환자 중 사망 환자는 총 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명(사망1명)보다 증가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SFTS 환자 중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여자 15명(77.8%), 남자 4명(22.2%)이었고 주로 낮은 자세로 농작업, 임산물 채

취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SFTS는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38℃~40℃의 고열과 오심·구토·설사·식욕부진 등 소화기증상 등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SFTS는 예방백신과 표적치료제가 없어 농작업, 풀 접촉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농촌지역 고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